

# 다매체시대, 시조와 현대소설을 통한 장르 확장의 가능성 고찰

— 생태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

허만옥\*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시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국문학, 특히 시조와 현대소설에서의 자연친화적이고 자연동화적인 상징물이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생태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시대와 장르 간의 통시적·통합적 사고를 도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문학, 특히 우리의 시조에서는 자연을 주거공간으로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의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자연친화적이며 자연동화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소설에서도 시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은유나 상징의 자연공간이 생태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되어진다. 따라서 이 두 장르는 통시적·통합적 관계에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학생태학과 장르 간 소통을 위한 올바른 방향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학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도 따지고 보면 진보와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만 매달려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학은 녹색의 문학생태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찾아 부단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학작품에 두루 나타나고 있는 공통의 자연관과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이제 수용과 창작의 통합의 원리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에게 자연과 환경, 생태계의 문제는 현실적이고도 공동적인 주제가 될

\* 남서울대

수 있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학적 문학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이 문학 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함양하는 실천적 교육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시적이며 통합적인 맥락에서 한국문학의 각 장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모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의 전통적 자연의식을 전승하고 있는 시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열린 사고를 갖고 시조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 모색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장르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학 환경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데서 그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생태학, 상상력, 시조, 현대소설, 생태계, 다매체시대

## 1. 서론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자연은 인간의 등지로서, 또한 자궁으로서 언제나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동양의 고전문학은 처음부터 생태주의(生態主義) 문학이었으니,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 간의 혼연일체론적 문학이었다. 즉 서양에서 자연이란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객관적 대상이었다면, 동양에서는 자연이 인간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였다. 공자(孔子)와 함께 동양 사상의 두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노자(老子) 역시 “우주 안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sup>1)</sup>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땅의 법칙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에 따르며, 하늘은 도(道)의 법칙에 따르고, 도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고 밝혔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한 가지일 따름이라는 사상<sup>2)</sup>

1) 노자, 이민주 역해, 『도덕경』, 혜원출판사, 1994, 92쪽.

2) 김육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74쪽 참조.

으로, 사람의 인지문(人之文)은 땅의 지지문(地之文)이나 하늘의 천지문(天之文)과 합치되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합일사상과의 통합적 사고의 소산인 것이다. 또한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원류로 하는 동아시아 문학의 '자연낙원' 지향성은 생태학적 상상력<sup>3)</sup>의 전범(典範)이 된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기계화와 근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은 다소 멀어지게 되었다. 문학에서도 자연은 다소 등한시 되는 듯하였으며, 인물묘사에서도 자연을 그리기보다는 산업과 기계문명의 현장을 그리는 것이 많아졌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다시 허무와 실존 속에서 자연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시기를 겪으면서 다시 동양적 자연관의 회복과 휴머니즘의 복원에 노력하게 되었다.

더욱이 동아시아 문학에 접맥되는 한국문학은 애초부터 친자연적 생태의식이 뛰어난 작품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 시가인

---

3) 생태학적 상상력은 남성의 권위주의적 속성과는 다른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성, 포용성, 다양성, 열려진 세계, 부드러움, 상호침투, 감각성, 자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소외되거나 사물화시킬 수 없으며, 어떠한 삶의 과정이라도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며, 이러한 인간적인 존엄성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까지도 소중한 우리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아낀다. 이덕화, 「여성문학과 생명주의」, 『여성문학연구』 제3호, 한국여성문학회, 182쪽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 존재론에서의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한스 요나스는 유기체적 현상, 즉 생명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절망적 자기 인식은 어쩌면 신체적 자연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유기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요나스는 유기체를 이해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또한 인간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진우, 「기술 시대의 생명 윤리」, 『문학과 사회』 1996년 봄호, 문학과 지성사, 284~285쪽.

시조, 전통 지향의 서정시, 그리고 자연성을 묘사하고 있는 서사문학의 소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친자연적 한국문학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생태의식을 일깨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생태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sup>4)</sup>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다매체시대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생태학(生態學)에 주목하여 한국문학에 나타난 자연친화적이고 자연동화적인 상징물과, 작가의식과 작품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한 한국문학의 통시적 사고와 장르 간의 통합적 사고를 도출하고자 한다.<sup>5)</sup> 우선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미의식과 호흡에 가장 알맞은 시형으로 계승 발전되며 우리 민족문화의 자연의식을 전승하고 있는 시조와,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자연의식을 내면화하여 서사적 언어로 형상화시킨 현대소설에 그 텍스트를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sup>6)</sup> 이것

4) 1990년대부터 대두된 한국문학의 생태주의는 창조적 변용을 지향한다. 도연명적 도화원의 자연 낙원(Greentopia)과 역사적 진보주의의 기술 낙원(Technopia)이 융화된 환경 낙원(Ecotopia)이야말로 한국문학의 생태주의적 상상력의 정신적 지주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은 마음생태학, 사회생태학, 환경생태학을 포괄한 총체적 생태학에 미친다. 이제 우리의 생태주의적 상상력은 종말론적 위기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인류 문명사에 대한 치열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생태비평(生態批評, ecological criticism)의 이름으로 수행될 21세기적 과제는 인문·사회·자연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5)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하나의 고리로 맺어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국문학의 원류이자 보고인 고전과 옛 문화를 암묵적이며 명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대문학에 접목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과 전통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한국적인 상징과 심상에의 탐색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로의 확대가 현재와 미래로의 확대에 근거가 되며, 다매체시대에서 각 장르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고서 다른 장르와의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6) 이는 우리 문학의 생성과 전개에 원천을 내재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일이다. 현대문학은 언제나 고전문학에 대해서 빛을 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현대

은 한국문학의 맥락이라는 틀 안에서 시조와 현대소설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아울러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이라는 시대와 장르 간의 소통 가능성과 통합적 사고라는 두 가지 모두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연의식과 생태학적 상상력은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생명존중과 타자존중의 의식으로 이어져 윤리적 주체를 형성하며 교육적 함의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 2. 새로운 문학 환경과 자연친화적 생태의식의 역할

디지털시대에는 과학기술적 소재가 많이 반영된다. 과학기술의 지식이 대중화되어 가고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작가들은 과학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독자 또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과학상식을 습득하고 핵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유전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 타자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문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등이라는 주제면에서의 면모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법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

작품의 심층을 찾아보면 그 맥락의 연관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통시적인 맥락 관계에서 우리 문학의 우리 문학다운 개별성과 특수성을 찾을 수 있으며, 유기적인 통합의 원근법에 입각한 하나의 문학사가 서술될 수 있는 단초가 밝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학 연구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의 단절을 극복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그 상호 접점을 찾는 일에 부심해야 할 당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고전은 넓고 무력한 것이며 현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수정하고, 이 양자가 긴장과 흡인력을 가진 하나의 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교호적인 안목 아래서 고전은 끊임 없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입체적이고 다선적인 소통과정을 보이며 장르 혼합이나 독자로의 열린문학을 지향한다. 따라서 앞으로 학제 간 및 장르 간의 소통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초월, 과거와 미래의 연결, 의식과 무의식의 혼합, 선형과 비선형의 조화, 그리고 순간과 영원의 합일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문화가 지닌 첨단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아직도 상당 부분 20세기적 요소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지만, 디지털시대의 오늘날 머지않은 장래에 문학을 비롯하여 모든 예술의 존재 방식은 필연적으로 격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에 따른 문학의 변화와 영역 확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한 기술사회의 환경과 생태 변화에서도 우리가 희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인간 존재의 정당성과 가치, 그리고 인간 존재의 중요성 등이다.

이때 문학이야말로 인간과 우주 만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고 예리하게 천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천착이 인류의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문학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때문인데, 그 가치는 문학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더욱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학은 현재 한국문학의 주요한 화두이면서 동시에 여러 분과학, 가령 문학·과학·철학·페미니즘·환경학·정치학·사회학·생명공학·종교학 등의 핵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생태주의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가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서구에서는 생태주의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즘'이나 '주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환경 위기의식의 대중화는 사회발전 속도와의 상관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문학은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문제를 성찰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새로운 생태사회를 꿈꾸는 문학을 의미한다.<sup>7)</sup> 그리하여 우리 국문학에서도 환경문학·생

태문학·녹색문학·문학생태학 등<sup>8)</sup>의 환경 및 생태 분야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여 문학연구의 주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인류가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분야의 문학은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생태주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한국문학에서는 일찍부터 배태되어 온 것이었다.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태의식을

- 
- 7) 생태학적 인식은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보지 말고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엄격하게 정의할 경우 생태문학의 범위가 매우 좁아져서 많은 작품들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 인식을 일깨울 수 있는 작품이다. 김용민, 『생태문학 - 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2003, 97쪽.
- 8) 각기 다른 표현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나 주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먼저 '환경문학'은 환경파괴나 자연훼손의 실상을 고발하는 문학을 가리킨다. 즉 지금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날날이 밝힘으로써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이다. 그러므로 이 문학은 다분히 고발문학적인 특성을 지닌다. 한편 '생태문학'은 자연파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하기보다는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좀더 근본적으로 따지는 문학을 말한다. 네스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환경문학이 표층적인 환경문제를 다룬다면 생태문학은 심층적인 환경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서 생태문학은 좀더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취한다. 인간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생물평등주의를 내세운다든지,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온 현대 과학과 기술 문명을 비판한다든지, 자연의 소중함이나 생태의식을 일깨운다든지 하는 문학은 환경문학보다는 생태문학에 가깝다. 그러나 이 두 문학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종류의 차이이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이고, 질적인 차이이기보다는 양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문학'은 환경문학과 생태문학을 함께 아우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다.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와 관련한 스펙트럼 전체를 포함하는 문학이 바로 녹색문학이다. 녹색문학이 시나 소설 그리고 희곡 같은 창작과 주로 관련한 개념이라면, '문학생태학'은 주로 문학이론이나 비평과 관련한 개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녹색문학에 관한 이론이나 녹색문학은 연구하는 문학비평 분야가 바로 문학생태학이다. 사회생태학자들이 사회학과 생태학을 접목시킨다면, 문학생태학자들은 문학과 생태학을 접목시킨다.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전통적인 문학 장르를 새롭게 검토하는가 하면, 생태 페미니즘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문학생태학은 '녹색이론'이나 '녹색비평'을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김옥동, 앞의 책, 37~39쪽 참조.

불러일으키는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쟁점화되고 있는 생태주의도 토착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문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생태문학이 단순히 인간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같이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인식은 장르와 매체 간의 교섭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다매체 환경이 문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3. 시조문학에서의 생태의식, 자연친화 · 무위자연의 미학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에 비해 자연과 환경에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동양의 전통 시가에는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 아주 많다. 물론 서양 문화권의 시가도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노래하지만, 동양 문화권의 시가와 비교해 보면 여러 모로 크게 다르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서양 문화권과는 달리 환경파괴나 자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친화적인 시가가 발달했다. 서양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연을 노래했다면 동양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연을 노래했다고 할 수 있다. 생태의식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전통 시가인 시조, 특히 평시조에는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이 많다. 사설시조하면 곧 남녀 상열의 사랑을 떠올리듯이, 평시조하면 자연스럽게 음풍농월(吟風弄月)을 떠올리게 된다.<sup>9)</sup> 자연을 한낱 도구나 수단으로 보

9) 시조에 나타나는 풍류의식의 양상으로 시조의 세 유형, 평시조 · 옛시조 · 사설



려는 시조작품도 적지 않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연 그 자체에 존재 이유를 부여하려는 작품도 얼마든지 있다.<sup>10)</sup> 몇몇 작품은 자연(自然)이 글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일 뿐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준다. 자연은 지배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존재할 따름이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의 전통문화나 문학에 나타난 상상력의 심층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현대문학에 어떻게 조응되고 있는가를 해명하여 한국

---

시조에 나타난 주제면에서 보면 세 유형에 공통으로 전원이나 산중(山中), 강산(江山), 신선세계 같은 탈속(脫俗) 취향의 풍류나 흥취와 꼭 탈속은 아니더라도 일상사나 가무악(歌舞樂), 취미활동 등에서 얻어지는 흥취나 풍류를 당대의 풍류객이 흔히 지향하는 '일반 풍류'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술과 관련한 '취락 풍류'를 또 하나로, 남녀관계의 '애정 풍류'를 다른 하나로 이렇게 셋으로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평시조→사설시조'의 파생은 일반 풍류가 취락과 애정을 합한 것보다 우세하나 '사설시조→평시조'로의 파생은 그 반대로 애정과 취락을 합한 것이 일반 풍류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략) 그만큼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기능이 주체소의 면에서는 호환이 원활했다는 의미가 된다. 김학성, 「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6, 27~28쪽 참조.

- 10) 자연을 노래한다고 하여 모두 생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생태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반자연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 얼마든지 있다. 가령 고려시대 말엽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크게 유행한 시조나 송강 정철의 가사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음풍농월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태주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조 시인들이나 가사 시인들은 권력구조에서 밀려나 잠시 시골에 내려와 자연을 벗삼고 있을 뿐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연을 버리고 다시 권력구조에 편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내재적 가치나 본질적 가치보다는 효용적 가치나 교환가치에 훨씬 더 무게를 실는다. 자연친화적인 작품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조나 가사는 여전히 자연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옥동, 앞의 책, 107쪽 참조.

문학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이미지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징과 이미지는 개인적인 상상력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대개 시간의 심화 속에서 퇴적된 의식의 복합성이 조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 특히 우리의 시조에서는 자연을 주거공간으로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의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자연친화적이며 자연동화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조문학의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산수 미감의 감성은 중국시에 대한 선형적인 인식과 교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 산수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경험적 인지나 감성에서도 그 생성의 요인이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다.<sup>11)</sup> 문학은 문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같이 친밀한 자연환경이나 풍경에서 얻어지는 느낌이나 생각을 상징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조문학 속의 자연적 공간으로 등장하는 집, 길, 산, 물, 달 등의 자연적 상징물은 세속적인 현실 사회와는 대비되는 청정하고 미적인 대상이자 공간이며 귀의와 합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세계로 내면화된다.

먼저 인간과 자연이라는 불가분리의 친밀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공간 중에서 자연적인 의미로서의 집이 등장한다. 집은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삶의 구심이며 상징적인 중심이다. 또한 가족을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공간성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다

11)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가 형태인 시조에서 추구되고 있는 생활의 이상미(理想美)란 바로 다름아닌 산거(山居) 한거(閑居)의 상태에 대한 귀의(歸依)와 침잠(沈潛)이다. 시조는 그 성격이 여항의 문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노년 예술이라 할 만큼 은둔적이고 안분(安分)·청빈(淸貧)·고적(孤寂)·단순·유현(幽玄)·한가함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궁극적인 세계는 우선 산수(山水)의 세계이며, 그 생활 내용은 세사를 깨끗이 잊거나 멀리 하고 푸른 산과 물, 즉 산수에 동화하는 자연적인 삶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전통문화에 내재한 친자연미는 그대로 이어져 현대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나타난다.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282~283쪽 참조.

루어지는 문학에 있어서 집이란 공간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집 가운데서도 방과 창과 문 등은 우리 문학에 나타나는 주거 공간에서 가장 친밀한 경험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적 모티프가 되고 있다.<sup>12)</sup> 가령 시조나 가사문학에 등장하는 동창(東窓)·봉창(封窓)·남창(南窓)·영창(影窓)·사창(紗窓)·객창(客窓) 등의 많은 창이 이를 반증한다.

東窓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희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례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느냐.<sup>13)</sup>

우리 고시가에 나타나는 창은 주로 햇빛을 받거나 달빛에 젖어있는

- 
- 12) 한국문학에서 친밀한 경험을 갖게 하는 집 안의 장소로는 여러 종류의 창문이 나 대창마루, 초당방·다락방·별당을 비롯하여 울타리(시비)·돌담·뒤뜰 등이 있다. 특히 창문은 작가에게 주요한 창작의 상징물로 다가왔다. 창문은 먼저 환기의 통로를 들 수가 있다. 밀폐된 내부와 열린 외적 공간의 점차적인 이질화는 환기로써 어느 정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환기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 자연을 공급하여 안쪽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준다. 즉 창은 벽으로 차단된 공간을 소통시켜 안과 밖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룩하고 폐쇄된 방안의 인간에게 활력을 준다. 다음으로 창은 '열다'와 '닫다'라는 기능적 측면을 갖는다. '열다'라는 말은 열어 보임과 열어 밝힘으로서 확장과 해방을 상징하고 '닫다'는 그 반대가 된다. 우리는 '닫힌' 창이 주는 단절감을 쉽게 경험하며 '열린' 창에 대한 연대감을 느낀다. 창을 엮으로써 바깥세계는 안쪽으로 들어온다. 창을 열어 바깥세계를 맞아들임으로써 인간과 자연이라는 '나와 그'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며, 인간이 비로소 존재적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 즉 현존재의 차원에 세계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로 향해 열려져 있음은 현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이다. 세계로 향한 관심이 바로 창 의 이미지며 인간은 그 관심의 주체인 것이다.
- 13) 조선 후기의 문신 남구만의 시조이다.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의 풍류를 즐기며 쓴 작품으로서, 밝아오는 아침과 하늘 높이 날며 지저귀는 종달새를 통해 평화로운 시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농촌의 아침 정경을 여유있게 표현해 그 운치와 멋을 살리면서,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가르침을 주는 권농가(勸農歌) 중의 하나다.

시간성과 관련되는 창이다. 동창의 햇빛은 노동의 시간과 연결되며, 사창과 영창의 달빛은 사랑과 그리움을 공간화한 것이요 내면적 심적 동요의 중개자가 된다. 이렇게 우주를 집으로 끌어들이며 현존재의 차원으로 상징화하는 생각이야말로 생태주의에서는 매우 소중하다. 우주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집을 사회적 신분의 척도로 삼는 현대인과 비교해 볼 때, 그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참으로 값지고 소중하다. 현대문학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현대인의 고독과 외로움, 공간적인 소외와 사회적인 소외도 모두 집이나 방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시키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광활한 자연과 우주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라는 또 다른 자연 공간의 상징물과 마주해야 한다. 그런데 길이 인생의 행로로 곧잘 비유되기도 하지만, 길은 탐색과 시련과 선택의 표상이기도 하다.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많은 길 가운데서 자기만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탐색의 과정을 거친 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길이 가장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된 것이 바로 동양에 있어서의 도(道)일 것이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보아도 여던 길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여고 어쩔고.<sup>14)</sup>

이 작품은 전승(傳承)과 수기(修己)의 엄숙한 정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조문학에서는 갈 곳을 모르는 기로(岐路), 돌아가는 회향길, 그리고 풍류의 멋을 담고 있는 무수한 길이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작가는

14) 퇴계 이황의 작품이다. 시간성을 초월한 고인과의 합일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역행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바로 도(道)인 것이다.

위대한 정신의 초시간성을 길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술이부작(述而不作)', 즉 고도의 가치와 앞선 사람의 자취를 따라가는 유가적인 도(道)에 통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말 없는 靑山이오 態 없는 流水로다  
값 없는 淸風이오 임자 없는 明月이라  
이 중에 일 없는 내 몸이 分別 없이 늙으리라.<sup>15)</sup>

이 작품에서는 산, 물, 바람, 달 등의 자연물이 등장한다. 모두가 말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sup>16)</sup> 자연을 통해 속세를 떠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대자연 속에 묻혀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한거(閑居)의 세계관을 표출한다. 평생을 벼슬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아간 작가의 품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다. 또한 자연친화적이며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서 세속적인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겠다는 달관의 경지까지 감득할 수 있다. 특히 '없는'이라는 말이 가져다 주는 운율의 묘미를 살려 청빈함으로 자연을 벗 삼는 즐거움이라는 문학적 상상력을 형상화시키는 데서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가치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무위자연에 큰 가치를 두려는 태도는 다음 작품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15) 성혼의 작품이다. 그는 평생을 거의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았다. 특히 율곡의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반박 논쟁을 벌여 유학계의 화제가 되었고 성리학에 있어서 기호학파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다.

16) 시조에서 말 없는 자연에 대한 상찬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 관습시였던 시조의 구비적 연행 조건에 말미암은 것이다. 즉 자연의 말없음이라는 자질은 작시와 연행, 전승이 특정한 환경에서 말로 이루어지는 사정에 의해 관습적으로 굳어진 일종의 공식구였던 것이다. (중략) 따라서 현상학적으로는 시조 시인들이 자연 속에서 자기만족적 세계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은 시인들이 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며, 그들이 다만 놀고 가는 곳일 따름이다. 류수열, 「시조의 자연, 그 '말없음'의 의미론」,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1, 10~11쪽 참조.

靑山도 절로절로 綠水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 하니 山水간 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생긴 人生 절로절로 늙사오려.<sup>17)</sup>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살고자 하는 작가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다. 청산과 녹수라는 자연물을 통하여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함께 존재하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시조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자연 속에서 절로 자란 몸이니 이제 늙는 것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가리라는 시구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인위를 가하지 않는 동양적 전통의 무위자연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절로'라는 시어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집약한 것으로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생태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에 인공을 가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바로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수단과 대상으로 전락시켜 오늘날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다.<sup>18)</sup> 따라서 파계된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항 대립적 사고의 틀을 해체하고,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 및 더 나아가 완전 동화 내지 일

17) 김인후 또는 송시열의 작품이라고 한다. 모든 것을 대자연의 순리에 맡기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다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을 읽을 수 있다.

18) 무위자연의 속성인 '없음'과 '절로'의 상태가 생태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라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높다란 벽을 허무는 것도 또다른 궁극적 목표다.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두 쪽으로 나누어서 보던 이항대립적 사고가 오늘날의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서양에서 근대 과학이 발달한 것도 이렇게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바로 그 근대 과학이 오늘날의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낳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김옥동, 앞의 책, 128~129쪽.

치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風雪 山齊夜에 相對 一樹梅라  
웃고 저를 보니 저도 날을 웃는고나  
두어라 梅則農兮 農則梅인가 하노라.<sup>19)</sup>

인간과 자연과의 완전 동화를 느끼게 한다.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은, 옛 선비의 말대로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에 분분(紛紛)한 어두운 산 속에서 마주한 것은 한 그루의 매화뿐이다.<sup>20)</sup> 속세의 번거로움을 피하여 찾아간 곳은 밤중의 적요(寂寥) 적막(寂寞)한 공간이라 이러한 고적(孤寂)의 자연 속에서는 내적 대화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눈 속에서 높고 뛰어난 운치를 가진 매화와 마주했으니 그것과 더불어 술잔을 나누는 정경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한 것은 바로 '웃음' 때문이다. 즉 매화와 작가 사이에 마주치는 애정어린 교감과 자연 동화의 경지에서 나오는 염화시중의 웃음이다. 결국 그 웃음으로 인하여 “매화가 곧 나요, 내가 곧 매화”라는 자연과의 합일의 순간에 이른다.

19) 화암 송타의 작품이다. 눈발이 날리는 산 속 '화암서재'에서 한 그루 매화와 마주한 화암의 모습과 그의 친자연의식을 느낄 수 있다.

20) 동양에서 사군자의 하나로 꼽히는 매화는 절개를 지키는 꽃으로 선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한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의 기질로 인해 문인에게는 어느 꽃나무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받았다. 이 설중매(雪中梅)는 그 이름대로 눈기운이 자욱한 겨울 속에서 꽃을 피워 낸다. 매화의 향기는 봄의 전령사 역할을 했으며 그 향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신으로부터 얻은 자연의 향기라고도 인정받았다. 류해춘, 「웰빙시대의 시조미학」, 『시조세계』 17호, 2004년 겨울호, 144~145쪽.

#### 4. 서사문학에서의 생태적 상상력,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본능의 구현

문학에 생태학을 접목시킨 조셉 미커는 『생존의 희극』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켜 인류를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을 작가의 의무로 보았다. 아울러 문학은 인간이 유일하게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문학이 인류의 안녕과 생존의 역할을 맡는다면 그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소설 〈대나무〉는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생태주의 소설로 손꼽힌다.<sup>21)</sup> 그런데 생태문학은 시문학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1970년대 급성장한 산업화로 맹아한 생태시는 환경 또는 생태, 혹은 생명 문제와 관련해서 심층생태학<sup>22)</sup>과의 접합이 두드러졌다. 생태시가 독자적인 영역을 이룬 것에 비해, 생태소설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

21) 이 작품의 주인공 베르트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의 생태를 파괴했던 것이다. 작품에 의하면 대나무가 이러한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면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수천의 쌍둥이들이 아픔을 느낀다. 반면에 물을 주면 모든 대나무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알코올로 황폐화되어갈 때 수천의 인간들이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인간의 생태계와 마찬가지로다. 인간 중심 생태론은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을 멸종시킨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 생태론에서 자연 중심 생태론으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해진다. 이러한 논리는 주인공 베르트에게 영향을 주어 남은 여생을 환경 운동과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헌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문학은 생태교육의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22) 심층생태학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바로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수단과 대상으로 전락시켜 오늘날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다고 보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든 생명체를 동일한 가치로 볼 것을 주장한다. '생명중심주의'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각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 즉 생태계의 많은 구성원 가운데 독특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니고 단지 생태계라는 그물망을 이루는 하나의 고리일 뿐이므로 다른 생물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김용민, 앞의 책, 52~53쪽. 참조.



었으므로 다소 늦은 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리라고 본다.

먼저 소설은 생태 위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문제의식을 개선하고 극복 방안을 고려하는 데 보다 용이하여 약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태계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계몽성을 띤 교조적(敎條的) 문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그간 발표된 한국의 생태소설은 대개 공업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고발성 문학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23)</sup> 그러나 문학생태학이 환경파괴나 자연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좁은 의미의 문학생태학이다.<sup>24)</sup>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파괴나 훼손의 근본 원인을 꼼꼼하게 따지는 문명 비판적 입장에 서서 새로운 자연관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 모델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시대의 문학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만 문학은 환경보호단체의 선전구호와 구별된다.

23) 환경이나 생태계 중요성 제고의 소설은 우리의 경우 산업사회의 이행기인 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을병의 <병든 지구>(1974)와 김용성의 <사해(死海) 위에서>(1976) 등을 비롯해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1977), 김원일의 <도요새에 대한 명상>(1979), <따뜻한 돌>(1981), 한승원의 <누이와 늑대>(1980), 이청의 <부러진 노를 저어저어>(1982), 한정희의 중편 <불타는 폐선>(1989), 우한용의 <불바람>(1989), 이남희의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1991), 김수용의 <이화에 월백하거든>(1991), 박혜강의 <검은 노을>(1991), 정도상의 <겨울꽃>(1992),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2), 문순태의 <낮선 귀향>(1992), 김종성의 <말없는 놀이꾼들>(1993), 정찬의 <산다화>(1994), 최성각의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1994), 한수산의 <침묵>(1994), 김태연의 <그림 같은 시절>(1994), 한승원의 <연꽃 바다>(1997), 김종성의 <용울음소리>(1997), 백도기의 <자전거 타는 여자>(1998), 김하기의 <용늪 가는 길>(1998), 우애령의 <가로등>(1999), 최성각의 『동강은 황새 여울을 안고 흐른다』(1999), 이충호의 <풍파>(2000), 김문수의 <아론>(2000), 조용현의 <전국 노래자랑>(2000) 등의 작품이 있다.

24) 김육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40~41쪽.

생태소설의 활성화를 단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설이 다른 장르와 매체를 수용하는 양상을 통하여 소설의 통합적 속성과 다매체 시대에 소설이 살아가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즉 소설은 타 장르나 비활자 매체가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질에 맞게 대상의 형질을 바꾼다. 이것이 다매체 디지털시대에서 소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소설의 통합 장르의 속성이자, 타 장르와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현대소설에서도 시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길, 산, 오지(輿地) 등의 은유나 상징의 자연공간이 생태적 상상력으로 곧잘 형상화되어진다.

먼저 이청준의 작품에서 자연은 중요한 모티프가 되고 때로는 주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서편제〉에서 오지의 자연은 인간이 참아내야 하는 한(恨)의 공간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한이 서린 인간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연에로의 귀의와 귀향을 그린 오영수의 작품들에서도 생태적 삶의 염원을 찾을 수 있다. 그의 〈메아리〉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도시적인

---

25) 소설이 타장르와 비활자 매체를 수용하는 경향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소설의 위기, 더 나아가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소설이 통합 장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 시대에도 발휘하며 스스로 갱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접 장르 수용에 있어 이미지 모사의 영상미학이 소설 고유의 영역에 침투됨으로써 소설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소설 문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와 비활자 매체를 자신의 몸 속에 용해시키는 것은 소설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다. 소설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미완성의 장르이며, 소설이 타장르와 비활자 매체를 수용해도 자신의 기본 형질을 잃지 않는다. 이를테면 활자 매체로서의 소설이 속도와 몰입의 특성을 갖는 영상물을 받아들여도 문학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느낌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소설의 통합 장르의 속성이자 타 장르와의 교호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것을 완전히 외면한, 철저히 폐쇄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도시적인 것에 대한 혐오와 토속적·향토적인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을 그리고 있다. 도시는 악이고 자연은 선이라는 다소 이분법적인 구획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연적 세계에 대하여 칭송하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영수 문학의 특성이다. 그에게 있어 산은 도시에서 살 수 없어 두메나 오지로 찾아 들어간 사람들의 생명력 복원의 공간이며, 평지의 세속적인 삶에 대립된 세계로서 반문명적이고 원시적인 단순한 삶이 영위되는 시원의 자연 공간인 것이다.

산은 깊을수록 좋고 나무는 많을수록 좋다. 소나무보다는 잣목이 많을수록 더 좋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 가을이 더 좋고 겨울도 싫지 않다. 이렇게 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든든하고 미덥다. 산골에 들어온 것이 마치 고향이라도 온 것처럼 한결 마음이 흐뭇하고 너그럽다. 산골에 들어 오기를 열 번 잘했다 싶다. 간간이 산이 짙-하고 울 때가 있다. 하루에 한번쯤, 어찌면 한달에 몇 번쯤 - 산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자주 운다. 먼 지축에서 나 울려 나온 듯 은은하면서도 맑고 중후한 그런 울음이다. 동육은 산이 울 적마다 산의 생명감 같은 것을 느끼고 마음이 경건해진다.<sup>26)</sup>

자연적 공간의 산이 이처럼 현실 사회와 대극인 자연에의 회귀와 동화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김동리의 소설 세계에서도 두드러진다. 김동리의 작품에서도 자연 묘사의 빈도가 높다. 그 가운데 〈역마〉는 작가 특유의 다양한 상징과 암시를 통해 매우 시적으로 쓰여졌고, 여기에 지리산 쌍계사 주변의 자연경관과 풍물이 더하여 더욱 아름답게 형상화된 소설이다. 바로 동양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간이 자연과 동화되는 방편으로서 성(性)의 자연스러움을 제시한다. 이는 자연에의 귀의를 성관계로 묘사

---

26) 오영수, 〈메아리〉.

한 것으로서 성의 결합을 본능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는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을 거치면서 인간성의 발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대의 자연은 성이었다. 서양의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 〈보바리 부인〉 등의 소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리도 그런 의미에서의 자연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이때 성의 결합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무런 거리낌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계연은 당황하여 쥐고 있던 새과란 으름 두 개를 성기의 코끝에 내어밀었다. 성기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그 둥그스름한 어깨와 목덜미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입술이 포개졌다. 그녀의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에서는 한나절 먹은 딸기, 오디, 산복숭아, 으름 등의 달짝지근한 풋내와 함께, 황토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고수한 고기(肉) 냄새가 느껴졌다. 까악까악하고 난데없는 가마귀 한 마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울며 날아갔다. “칠볼은 아직 멀었지라?” 계연은 다래 덩굴에 걸어 두었던 점심을 벗겨 들었다.<sup>27)</sup>

절에 가던 계연과 성기 두 사람은 아무런 저항감이나 타산 없이 물 흐르듯 관계를 갖는다. 성기에게 계연은 ‘딸기, 오디, 산복숭아, 으름’이었고 ‘고수한 고기’였다. 그것은 계연에게도 마찬가지다. 관계 후에 계연이 맨 먼저 점심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성의 결합은 하나의 본능이었다. 본능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이들이 놓여 있는 자연 속에서 같이 자연으로 어울리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본능을 억압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합치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연스런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대자연 속이라는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오정희 소설에서는 물과 불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옛 우물〉은 삶과 죽음, 영원과 순간, 현재와 과거 등의 시공간적 화합이 우물

---

27) 김동리, 〈역마〉.

과 금빛 잉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오정희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세계의 극점에 놓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옛 우물'의 상징이다.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음'과 '흘러 감'의 두 속성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흔히 고정된 형태가 없는 자연적 존재물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물의 존재 형태 또는 존재 양식은 주기적 과정으로서의 자연이며, 그 반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는 반복인 것이다. 즉 물의 흐름은 존재와 시간의 의미를 견지하며, 물의 영원성과 순환, 조화와 통일성의 반복은 세대와 시간을 나타낸다. 따라서 물의 물질적 상상력은 존재의 실재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모성적 본능이자, 근원적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자연과 여성의 이미지는 동일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 여성은 '생명 출산'과 '포용'이라는 생산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어둠이 깃드는 숲에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으면 현자가 된 느낌이 든다. 나무의 몸체에 가만히 귀를 대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나무의 말을 알아듣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었다. 나무의 몸에서 귀를 떼고 팔을 벌려 안아보았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신을 벗고 나무 위로 기어올랐다. 거친 줄기의 속 깊이 흐르는 수액이 향기롭게 맡아졌다. 나무는 곧게 자라 자칫 주르르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듯 긴장이 되었다. 나는 다리를 꼬아 힘껏 굵은 줄기를 휘감았다. 돌연하고 불합리한 욕구로 몸이 뜨거워졌다. 나는 나무를 껴안고 감아 안은 다리에 힘을 주며 온 힘을 다해 비틀었다. 아아,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오고 나는 산산이 해체되어 흰빛의 다발로 흩어지는 듯한 짧은 회열을 느끼며 축 늘어졌다. 나는 조금 울었는가?<sup>28)</sup>

숲 속의 나무와 동체를 형성한다는 묘사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나무와의 성적 관계를 비의적으로 암시하며, 그 속에서의 엑스터시(ecstasy)

28) 오정희, 〈옛 우물〉.

를 형상화한다. 나무와의 만남 또는 포옹은 소외된 자의 어두운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욕망을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 자구책의 은밀한 처방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축축하지만 튼튼한, 자신보다 한없이 높은, 기대면 전신이 그대로 편안한, 나무의 그런 온기의 맥박을 가슴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은 성행위다. 이 경우 나무는 상상 속의 남근이며, 우주수(宇宙樹)다. 여자는 옛 우물이며, 그 우물은 바로 상상 속의 우주의 배꼽이며 대지의 자궁이다. 나무와 여자의 만남은 남근과 자궁의 만남이며, 그것은 엑스터시의 성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 이 새로운 생명만이 죽음을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그’를 비롯한 모든 사라진 존재를 끌어안고, 그것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더욱 찬연한 존재가 되어 살아나게 한다. 그럼으로써 그녀 자신이 장구한 삶의 질서 속에 있음을 감격적으로 깨닫는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보다 오래 지속될 자연의 생명과 교감하여 “산산이 해체되어 흰빛의 다발로 흩어지는 듯한 짧은 희열을” 느끼는 장면에서는 자신의 여성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감격이 표출이자, 자연과의 합일의 순간이기도 하다.

## 5. 결론, 문학생태학과 장르 간 소통을 위한 올바른 방향

이 논문은 오늘날 다매체시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국문학, 특히 시조와 현대소설에서의 자연친화적이고 자연동화적인 상징물이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생태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시대와 장르 간의 통시적·통합적 사고를 도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비

해 두 장르의 공통된 자연관 및 생태의식에 대한 좀더 광범위하고 면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실제의 모형을 제시하진 못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할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편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문학생태학과 장르 간 소통을 위한 올바른 방향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도 따지고 보면 진보와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만 매달려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학은 녹색의 문학생태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찾아 부단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문학작품에 두루 나타나고 있는 공통의 자연관과 문학생태학적 상상력을 이제 수용과 창작의 통합의 원리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에게 자연과 환경, 생태계의 문제는 현실적이고도 공동적인 주제가 될 수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학적·사회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학적 문학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이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함양하는 실천적 교육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시적이며 통합적인 맥락에서 한국문학의 각 장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모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의 전통적 자연의식을 전승하고 있는 시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열린 사고를 갖고 시조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 모색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장르 및 매체와의 교호를 통하여 또다른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의 장

르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학 환경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데서 그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무겁거나 고아(高雅)한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 개최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한 시조의 보급 확대와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정희,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 2004.6.  
 구자희, 『한국현대 생태담론과 이론연구』, 새미, 2004.  
 광경숙, 「한국 현대소설의 생태학적 연구」, 전남대(박사), 2001.  
 김동환, 「생태학적 위기와 소설의 대응력」, 『실천문학』, 1996 가을호.  
 김미영, 「소설교육의 한 가능성」, 『어문연구』 제33권 제1호, 2005년 봄호.  
 김용민, 『생태문학-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2003.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재국, 『사이버리즘과 사이버소설』, 국학자료원, 2001.  
 김학성, 「시조의 텍스트 파생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6.  
 김해옥, 『생태문학론』, 새미, 2005.  
 나정순,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을 통해 본 시조」, 『시조학논총』 24집, 한국시조학회, 2006.1.  
 류수열, 「시조의 자연, 그 '말없음'의 의미론」,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1.  
 류해춘, 「웰빙시대의 시조미학」, 『시조세계』 17호, 2004년 겨울호.  
 신덕룡, 『환경 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1999.  
 오승희, 「한국시조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12.  
 이덕화, 「여성문학과 생명주의」, 『여성문학연구』 제3호, 한국여성문학회.  
 이은실, 「한국 현대 생태소설 연구」, 동덕여대(박사), 2004.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 이진우, 「기술 시대의 생명 윤리」, 『문학과 사회』 1996년 봄호, 문학과 지성사.  
임영천, 「한국 생태소설 연구」,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04.6.  
전혜자, 「한국현대문학과 생태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5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6.  
정혜원, 『시조문학과 그 내면의식』, 상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2.  
홍성암, 「환경문학의 양상과 그 지향점」, 『비평문학』 17호, 한국비평문학회, 2003.7.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about genre extension of  
korean verse and modern novel in Multimedia age

Hur Man-Ook

This treatise puts with ecology that important topic is becoming in Multimedia age today. Is appearing to some meaning that symbol that is nature friendship and nature assimilation in korean verse and modern novel. And is the purpose to draw diachronic and synthetic thought between age and genre is forming by ecological imagination how.

Our korean verse thinks of nature as residing space, and is singing life that is nature friendship and nature assimilation in relation of indivisibility state of human and nature. And nature space of metaphor or symbol is forming by ecological imagination in the modern novel. Therefore, these two genres see that traffic is available in diachronic synthetic relation.

First, must escape resolutely in ideas that literature is basing in

actuality and search the literature-ecological imagination. Therefore, forward literature may have to look for the literature-ecological imagination with many interests to green literature ecology and show image that move constantly. And must approach appearing common view of nature and the literature-ecological imagination in principle of integration of expropriation and production now all round to our literary productions. Therefore, must do so that can be nature friendship and become practical education model that expropriation of ecological literary productions and production activity foster literary sensibility and imagination. Also, lively research and groping about each genre of a Korean literature are to premised in diachronic and synthetic veins I will. Method groping that adapt on New Age as defending peculiar special quality that founder is keeping korean verse with opened thinking may have to be spread more hard. Therefore, genre of novel can may ready the one clue to grope confrontation method naturally to secure new identity in new literature environment of digital age.

*Keywords* : ecology, imagination, korean verse, modern novel, ecosystem, multimedia age

논문투고일 : 2006년 6월 1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7월 18일